KCC, 중소상인과 상생시스템 구축

KCC(대표 정몽익)의 <홈씨씨 파트너> 프로젝트가 중소 상공인들과의 상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다.

KCC에 따르면, 2011년 3월 시행 이후 <홈씨씨 파트너>에 가입한 지역 중소 인테리어업체가 11월 현재 3000개를 넘어섰다.

<홈씨씨 파트너>는 KCC의 인테리어 전문 매장인 홈씨씨가 지역 점포와 손잡고 자재 공급은 물론 설계·시공·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협력사업이다.

가맹비 등 추가비용이 전혀 없고, 영업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KCC는 밝혔다.

가입 점포는 검증된 고급 자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인지도 높은 KCC 브랜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특히, 기존 대기업 인테리어 프랜차이즈가 대리점 영업사항을 일일이 간섭하는데 비해 홈씨씨 파트너는 계약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과정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어 만족도가 크다고 KCC는 덧붙였다.

KCC 관계자는 “최근 대기업의 <골목상권 침해> 논란에서 언급되는 사례와 달리 홈씨씨 파트너는 중소 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”이라며 “파트너들과 함께 국내 인테리어 문화를 한단계 격상시키겠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2/11/20>

Copyright ⓒ 1991 by CMRI